

제 목 • 내마음대로 접든
양면 딱지

말 안해도 밖에서 10초만 서있으면 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.
지난주 금요일.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양 진 선 선생님과 함께 미술을 했다.
우리가 만들 미술 작품의 주제는 양면 딱지였다. 선생님께서 양면 딱지를

만드는 영상을 보여주셨다. 처음에 나는 영상대로 잘 따라했다. 가면 같은 수를

어려워 지자 그만 나는 원래 딱지 접는 대로 2개를 만들었다. 딱지 2개를
딱지로 부쳐버렸다. 선생님께서 내것을 보시고 웃으며 말하셨다.

“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오오오오” 나도 선생님을 보며 웃었다.

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. ☆☆☆ 내가 만든 딱지는 내마음대로 만드는 딱지네!!

우리반 친구들은 하나 둘 양면 딱지를 완성해갔다. 친구들이
다 완성하자 선생님께서 말하셨다. “타 만든 사람들은 딱지 치기

해도 돼~” 우리반 친구들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을 했다. “네!!”

나는 친구들과 함께 딱지 치기를 했다. ☆☆☆ 우리가 딱지를 칠 때마다

자아악!, 딱악! 소리가 났다. 그 소리 들을 듣고 어릴 때 치던

딱지가 생각이 났고, 엄청나게 양의 딱지를 버린 것이 너무나도

아깝다. ㅠ.ㅠ